

# 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1 경의선 옛 능곡역 '능곡 1904'로 재탄생

시는 옛 능곡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앞두고 새로운 공간 이름을 '능곡 1904'로 선정했다.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역사문화, 브랜드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후보작을 선정해 총 5차례 현장 투표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최종 선정했다. '1904'는 능곡역 영업개시년도인 1904년을 의미해 능곡역 역사와 정체성, 과거로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행신역에 고양안심무인택배함을 추가 설치해 신규 운영에 들어갔다. 고양안심무인택배함은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고양종합터미널 등 22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 고양안심무인택배함 행신역 추가 설치



#3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새로운 고양페이 카드 발행

지난달 17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고양페이가 발행 됐다. 교통기능이 추가된 고양페이 카드는 경기지역 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2,000원이다. 청소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편의점이나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번에 발급하는 교통기능은 전국 호환규격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4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시는 지난달 15일 스몸비족의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행신·낙민초등학교 및 화정역 광장 횡단보도 3곳에 LED 바닥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 스몸비족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걷는 사람을 일컫는다.



#5 킨텍스 C4 부지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C4 부지가 아름다운 꽃밭으로 재탄생했다. 코스모스 꽃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농가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파종작업을 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 과정은 고양벤처농업대학 양봉반과 농업기술전문가반, 농업실용교육, 전문 농업기술교육, 기초농업기술교육 과정이다. 교육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6 농업인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